

박철우 품은 한전, 다음 시즌 남자부 '다크호스' 되나

최고 대우 제시...FA시장 역대 최고 이번 과감한 베팅

트라이아웃에 준수한 레프트 자원 많아 강력한 좌우 구축

국가대표 라이트 박철우(35)를 품은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다가올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박철우에게 역대 구단 최고 대우를 제시, FA 계약을 이끌어냈다. 20일 구단 공식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전의 과감한 베팅으로 FA 시장 역대 최고 이번을 일으켰다.

박철우의 합류는 부임 2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장병철 한전 감독에게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장 감독은 2019-20시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기 종료된 상황에서 7개 팀 중 7위

로 어렵게 데뷔 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다가올 시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수박에 없는데 한전은 라이트 박철우에, 준수한 레프트 외국인 선수를 뽑아 강력한 좌우 쌍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FA 시장에서 리시브가 좋은 이시몬까지 OK저축은행에서 데려왔다.

아직까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시즌에는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전 현대캐피탈·쿠바), 알렉산드르 페레이라(등록명 알렉스·전 KB손해보험·포르투갈) 등 준수한 레프트들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기 이름을 올리면서 각 구단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태다. 한국전력은 박철우 영입으로 인한 보상

선수 문제와 약점으로 꼽히는 센터 자원 보강만 잘 진행된다면 충분히 다음 시즌 하위권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박철우는 A그룹이라 한전은 이전 시즌 그의 연봉 200%와 보호선수 5명을 제외한 선수 중 한 명을 내주거나, 연봉 300%를 내줘야 한다.

박철우의 영입은 단순한 전력 상승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그간 한전은 투자에 인색한 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FA 시장에서 선수들이 오퍼를 받더라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박철우 영입을 토대로 '투자에 인색하다'는 평가가 속 떨어지게 됐다. 한 구단 관계자는 "박철우의 이적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라며 "다음 시즌 남자부 관도가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지가 KBO리그...KIA 양현종 예열 '완료'

자체 홍백전 5이닝 8K 무실점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양현종(32)이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KBO가 21일 연습경기를 시작하고 내달 초 정규리그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스는 출격 준비를 마쳤다.

양현종은 18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평가전에서 5이닝 1피안타 1사사구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5회 1사 이후 백용환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곧바로 문선재와 이은총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마쳤다.

양현종은 자체 청백전이라고 하지만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하며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음을 입증했다.

2014시즌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승수를 수확한 양현종은 지난해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개막 이후 4월까지 출전한 5경기에서 4패, 평균자책점 9.82로 부진하면서 최악의 출발을

겪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양현종은 5월 2일 삼삼전에서 첫승을 따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결국 에이스답게 16승8패, 평균자책점 2.29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후반기에는 6승 무패, 평균자책점 0.72의 완벽투로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초반 몸이 올라오지 않아 고생했던 양현종은 2020시즌을 앞두고 더욱 철저하게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미국 플로리다 캠프부터 차분하게 담금질에 집중하며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18일 등판에서 양현종은 17타자를 상대로 투구수는 조금 많은 76개를 던졌지만, 장타 허용이 없었을 정도로 위력투를 보였다. 1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삼진을 뽑아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올해 맏 윌리엄스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KIA는 에이스 양현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다가올 5월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토론토 매체 "류현진, 플로리다에서 차분하게 담금질 중"

"계속 피칭하고 운동해 1월 몸상태 유지하고 있어"

캐나다 현지 매체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훈련 중인 에이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소식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캐나다로 출국하지 못한 채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차분하게 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토론토선'은 19일(한국시간) "플로리다에 남아있는 류현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스프링캠프인 미국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로 떠나지 못하고 플로리다에 남았다.

류현진은 예전 LA 다저스 동료인 러셀 마틴 포수의 배려 덕분에 마틴의 집에

서 부인과 머물고 있다. 매체는 "류현진의 와이프인 배지현씨는 임신 8개월"이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토론토 구단은 에이스 류현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단 역사상 투수 최다인 4년 800만달러에 류현진과 FA 계약을 맺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류현진의 발은 묶였다. 지난달 중순 시범경기가 중단됐고 아직 리그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우려 속에서도 류현진은 묵묵히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토론토 선은 "류현진은 계속 피칭을 하고 운동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은 1월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 담금질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언어적 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류현진은 토론토 클럽 하우스의 중심 인물이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동료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매체는 "류현진은 일상에서 부자런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코치는 "포수 입장에서 류현진 같은 투수의 공을 받는 일은 꿈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토론토 포수인 대니 잰슨의 말을 인용해 "(잭슨이) 류현진과 2번째 이닝을 마치고 와서, 류현진은 어느 공이든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던진다"는 칭찬을 했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류현진은 코로나19 사태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구단 코칭스태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LG, 창단 30주년 엠블럼 · 캐치프레이즈... '무적 LG, 끝까지 트윈스'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30주년 기념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30주년 기념 엠블럼은 '시바와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신수(神獸)'다. 화재, 재앙 등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서울을 상징하는 수호자인 '해치'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했다.

이는 프로야구 출범부터 연고지 서울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지난 30년간 구단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향후에도 해치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가짐을 익혀 행운과 기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무적 LG! 끝까지 TWINS!'라는 30주년 캐치프레이즈는 창단 30주년을 맞아 과거 30년의 신바람 야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향후 팬들과 선수단, 그리고 구단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구단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주년 기념 유니폼은 2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2020시즌



중에 30주년의 의미를 담은 기념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